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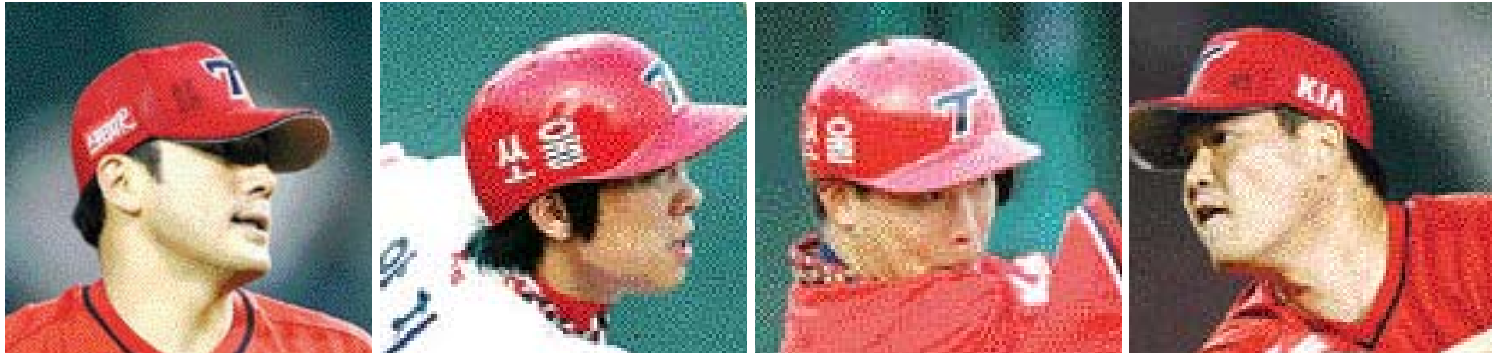
지친 호랑이 야성 찾아야 4강

야성 잃은 호랑이들이 안방에서 전반기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군산 홈경기에서 4연패를 채운 KIA 타이거즈가 20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올스타브레이크에 들어가기 전 열리는 전반기 마지막 대결이다. 지난 9일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 간신히 16연패에서 탈출했던 KIA는 이후 LG-SK와의 4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했다. 2연승 후 다시 4연패다.

특히 승리를 눈앞에 두고 놓친 15일, 18일 경기는 KIA에게는 두고두고 아쉽다. 15일 KIA는 LG와의 잠실경기에서 이현곤의 스윙스 번트와 이용규의 홈스틸까지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중간 안영명이 조인성에게 역전 스리런 홈런을 맞으면서 패전투수가 됐다.

18일에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던 로페즈가 '부활투'를 선보였다. 로페즈는 3회를 제외하고 8회까지 모든 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으며 단 2개의 안타로 2점을 내주며 호투했다. 하지만 10개의 안타를 터트리고 3개의 도루까지 성공시켰던 타자들이 2점을 만든 데 그쳤다.

연장승부에 들어간 KIA는 결국 2-8로 패했다. 마무리 유동훈은 5실점을 하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5위 LG와는 3.5게임차, 4위 롯데와는 5게임차가 됐다. 계속되는 패배에도 불구하고 4강 꿈이 아직 사라



<서재응>

<안치홍>

<나지완>

<유동훈>

2연승 뒤 4연패... 중요 길목 타선·마운드 침체 오늘부터 안방서 사자들과 전반기 마지막 대결

진 것은 아니다. 올스타브레이크 이후 KIA의 4강 승리를 쥐고 있는 롯데와 후반기 첫 대결을 갖는 만큼 전반기 최대의 승수를 쌓아두어야 한다.

상대는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사자들이다. 전반기 마감에 눈앞에 둔 두 팀은 상반편 행보속에 표정도 엇갈렸다. 야수진들의 세대교체에 실패한

KIA는 중요한 길목마다 타선에 발목이 잡혔다. 타자들이 '내부의 짝'이 되면서 마운드도 동반 침체 됐다. 불펜의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힘겹게 팀을 지탱하던 선발진들까지 줄줄이 무너졌다. 한국 무대 복귀 이후 최고의 피칭을 선보였던 서재응도 19일 여객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



찬호 122승

ML 동양인 선수 최다승 -1

박찬호(37·뉴욕 양키스)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승 신기록을 코앞에 두고 있다.

박찬호는 1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뉴양키스스타디움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홈경기에서 3-3으로 맞선 5회 등판해 1과 3분의1이닝동안 삼진 2개를 곁들이며 무안타 무실점으로 막고 팀이 9-5로 이기면서 구원승을 챙겼다. 이로써 박찬호는 메이저리그에서 개인통산 122승째를 올려 일본인 노모 히데오(은퇴)가 보유한 동양인 최다기록(123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1994년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박찬호는 올해까지 17시즌 동안 445경기(선발 287경기)에 등판해 통산 122승을 거뒀다.

박찬호는 1996년 5승을 시작으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연속 두자릿수 승수 행진을 펼쳤다. 2000년에는 개인 한 시즌 최다인 18승과 함께 평균자책점 3.27의 뛰어난 투구로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로 발돋움했다.

박찬호는 2001년 시즌 후 자유계약선수(FA)로 풀려 5년간 6500만달러에 이르는 대박을 터트리며 텍사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었지만 기나긴 슬럼프를 겪었다. 이적 첫해 9승8패, 평균자책점 5.75로 두자릿수 승수를 올리지 못했고 2003년에는 허리 부상 여파로 고작 1승 사냥에 그쳤다. 2004년에도 4승(7패)에 머물러 대표적인 '먹튀' 선수로 꼽혔지만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옮긴 2005년 6월 마침내 통산 100승 고지를 밟았다.

뉴욕 메츠로 옮긴 2007년 한 경기에 등판해 패전의 멍에를 썼고 친정팀 다저스에서 뛴 2008년 4승,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활약한 지난해 3승을 추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월 월드시리즈 우승 꿈을 안고 양키스의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박찬호는 중간계투 임무를 받았다. 올스타전 이전까지 21경기에 나서 27과 3분의2 이닝을 던졌지만 1승1패, 평균자책점 6.18로 부진했다.

박찬호는 전반기가 마감하고 나서 '하늘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때는 먼저 시련을 준다'는 요지의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재충전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후반기 첫 등판에서 행운까지 겹쳐 승수를 추가하는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관중 400만명 초입기

4년 연속·오늘 돌파할 듯
역대 두번째 최소 경기

2010 프로야구가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 400만 관중 달성을 눈앞에 뒀다. 전체 532경기 중 66%인 351경기가 진행된 18일까지 프로야구 총 입장 관중 수는 398만4414명(평균 1만1352명)을 기록하고 있다.

400만 관중에 1만5586명만 남겨두고 있어 20일 4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이후 4년 연속 400만 관중 돌파다. 1995년(344경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355경기) 400만 관중을 돌파하게 된다. 또한 200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올스타전 개최 이전에 400만 관중 돌파다.

프로야구는 지난 6월12일 역대 최소 경기인 243경기만에 300만 관중을 돌파

한 이후 장마와 무더위 등으로 인해 관중 증가 추이가 주춤했으나 전년 대비 5%의 관중증가율을 보이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규시즌 2위에 올라있는 삼성은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32만375명을 유치했고, 1위 독주중인 SK의 관중수도 지난해 비해 26% 증가했다.

'디펜딩 챔피언' KIA는 부진이 계속되면서 28만3727명의 관중을 불러들이는데 그쳤다. 지난해에 비해 15%가 줄어든 수치다.

롯데는 지난해보다 14% 관중이 줄었지만 총 관중수가 75만1817명으로 관중 동원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4일 대구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이후에는 삼성과 두산의 2위 싸움, 롯데와 LG의 치열한 4위 다툼과 함께 관중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조효비 7골... 난적 크로아티아 제압

한국 핸드볼 세계주니어선수권 3연승

20세 이하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7골을 몰아넣은 조효비의 활약을 앞세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3연승에 성공했다.

대표팀은 19일 광주 영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예선 B조 세 번째 경기에서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를 35-32로 따돌리고 3연승을 내달렸다.

한국은 3승으로 B조 단독 1위를 지키며 각조 상위 3개팀이 나가는 본선리그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두 골을 내리 넣은 이은비가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으로 4-1을 만들었다. 유은희는 180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위협적인 슛으로 크로아티아 수비수들을 흔들었다.

한국은 전반 막판 세 골을 연달아 성공시킨 정유라의 활약까지 더해 20-12로 전반을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정유라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크로아티아를 압박했다. 김선화와 이세미까지 득점공세에 가세하면서 한국은 24-13까지 점수를 벌리며 손쉽게 승리를 장식하는 듯 했다.

하지만 24-15를 만든 뒤 크로아티아의 공격이 뒤늦게 불을 뿜었다. 카타리나 예지치의 공격을 시작으로 크로아티아가 8골을 연속해서 터트리며 25-23으로 두 점차까지 따라붙었다.

위기의 순간 '주포' 유은희가 해결사로 나섰다. 전반 중반



19일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10 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조효비가 강슛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발목을 다쳤던 유은희가 크로아티아의 공격의 흐름을 끊는 골을 넣으며 팀의 26번째 점수를 만들었다.

조효비는 가로채기에 이은 속공과 측면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크로아티아의 카타리나가 종료 직전 연속해서 두 골을 넣었지만 경기는 35-32 한국의 승리

로 끝났다. 재치있는 플레이로 7골을 성공시킨 조효비는 경기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20일 휴식을 취한 대표팀은 21일 오후 3시 아르헨티나와 예선 4차전을 치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엄지 부상' 추신수 24일 복귀전

오른손 엄지를 다쳤던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21일 만에 메이저리그에 돌아온다.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구단은 19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전반기 팀 최우수 선수인 추신수와 또 다른 강타자 아스트루발 카브레라가 24일부터 홈구장 프로그레스 시브필드에서 열린 탬파베이 레이스와 경기부터 팀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오를랜드와 경기에서 다이빙 캐치를 하던 중 오른손이 꺾이면서 엄지 인대를 다쳤던 추신수는 수술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재활만으로 다시 복귀 다이아몬드에 설 수 있게 됐다. 이날 다친 뒤 처음으로 그라운드에서 투수가 던져 주는 공을 50여차례 스윙하며 타격감각을 조율한 추신수는 20일부터 사흘간 마이내리크 경기에 출전해 경기감각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女복싱 김주희 4대통합 챔피언 도전

세계 여자프로복싱 3대 기구 통합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프로복서 김주희(24·거인체육관)가 4대 기구 통합 챔피언에 도전한다. 거인체육관 정문호 관장은 19일 "김주희가 9월4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필리핀의 주재스 나가와(23)와 통합 타이틀 방어전 및 세계복싱연맹(WBF)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파프란 룩사이콩(태국)을 꺾고 여자국제복싱협회(WIBA), 여자국제복싱연맹(WIBF), 세계복싱연맹(GBU) 라이트플라이급 통합 챔피언에 오른 김주희는 이번 경기에 이기면 4대 기구를 통합한 챔피



언이 된다.

김주희는 지난 2월 미니플라이급으로 체급을 낮춰 여자 프로복싱 사상 처음으로 2체급 통합 타이틀에 도전할 예정이었지만 스폰서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김주희는 이달 말까지 국내에서 훈련을 한 뒤 내달 초 일본 후쿠오카 등에서 2주 가량 스파링 전지 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연합뉴스